

“혁신과 소통...광주비엔날레 경쟁력 강화”

취임 한달 박양우 대표이사 재단 혁신방향 발표

노사화합 시스템 구축, 조직 안정화 최우선 '미래혁신발전위원회' 구성·예술감독 조속 선정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국제적 행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내·외부 문제를 보완, 14회 광주비엔날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비엔날레재단의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취임 이후 광주비엔날레가 당면한 상황들을 파악해 온 박 대표이사는 이날 ▲재단 발전과 노조 권익 도모를 위한 노사화합 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평가 시스템 도입과 조직·인력 운영의 전문성 강화 ▲원칙 있고 안정된 조직을 위한 재단 정관 및 각종 규정 현실화 ▲재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가정 '미래혁신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요 혁신방향으로 제시했다.

노사화합 시스템 구축의 경우 박 대표이사 부임 전 야기된 조직원간의 갈등과 대립이 소통 부재가 원인이 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화합을 위해 박 대표는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노사협의 기구 구성, 전 직원 참여 워크숍, 경영세미나 등 소통과 화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내부갈등이 발생하면 대표이사 책임 하에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치가 나서는 등 노조 권익을 도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경영, 기획, 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개최년도와 준비년도의 업무 특성을 분석해 직무편중 문제 해결은 물론 탄력적 인력배치로 조직운영의 실효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전시기획, 계약 등 소관업무에 대한 교육의무 이수제 실시, 임직원 직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 자기계발 지원으로 조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해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또 재단 내부 시스템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화예술인, 경제인, 시민, 교수 등이 참여하는 미래혁신위원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과 함께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박 대표이사는 2년 주기 비엔날레 행사 외에 광주 작가들을 위한 전시, 역대 비엔날레 작품 아카이브 구축과 상설 아카이브 전 개최 등의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내년 예정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 감독에 대해선 “신속히 선임절차를 진행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노동위원회 진정 건, 주요 보직 간부의 공석, 인력 부족 등 현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소재성, 정신, 분위기, 취향 등 모든 것이 녹아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이면서도 차별성을 갖는 비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가 지난달 29일 취임 한달을 맞아 조직운영의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제공>

엔날레가 될 수 있다”면서 “광주비엔날레의 방향성, 정체성을 확고히 해 세계 미술사, 나아가 세계 문화사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다른 세계적 비엔날레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닌 비엔날레로 브랜드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내부사정으로 예술인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직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희중 기자

“비우고 채우기”

산수미술관, 10일까지 김일태 개인전

산수미술관(광주 동구 산수동)은 오는 10일까지 김일태 작가의 7회 개인전 ‘비우고 채우기-목포에서 제주까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평면 유채 추상 이미지로 그려진 ‘비우고 채우기’ 연작 16개를 선보인다.

‘비우고 채우기’ 제목에서 보여주듯 김 작가는 “세상을 새롭게 보려면 마음을 비우는 행위가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자연과 일상을 바라보고, 그때 떠오르는 심상을 기하학적 형태와 파스텔톤 색채로 감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2019년 여름부터 2021년 여름까지 광주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제주로, 작업공간을 찾아 떠났던 여정에서 작가가 느꼈던 낯은 도시 풍경에 대한 인상들을 담백하고 유쾌한 선과 색으로 기록한 그림들이다.

3년간의 여정 속에서 얻은 색다른 인상을 머리 속에서 3차원의 구조로 입체화 시킨 뒤 2차원 평면에 포착해낸 방식으로 추상화시켰다.

그는 외부 세계에서 얻은 심상을 입체 형태로 구성하고 이를 다시 평면 형태로 분해하는 방식

으로 이미지를 산출한다. 그의 작업의 역순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경험할 수 있다.

김 작가는 기하학적 형태의 입체 도형에다 ‘목포 작업실’, ‘목포 커피 마누라’, ‘목포 바람 부는날’, ‘제주 보목동’, ‘제주 숲섬’ 등의 제목을 붙여놓고 있다. 그의 작품에선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까지 3차원의 입체 형식으로 바라보려는 조소 전공 작가 특유의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김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



김일태 작 '제주 보목동'

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장민한 산수미술관장은 “추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작가 고유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적합한 형식”이라며 “‘비우고 채우기’ 연작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3차원 형태로 단순화해 관객과 쉽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우리시대 ‘지영’씨를 초대합니다”

광주문화재단, '지영씨의 인생부록Ⅲ' 참가자 15명 오늘까지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30-40대 여성들을 위한 '지영씨의 인생부록Ⅲ-별을 찾아서' 참가자를 5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는 이 사업은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다. 30-40대 출산과 육아를 겪으며 생애 변곡점에 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올해 '지영씨의 인생부록'은 엄마가 아닌 '나'로,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총 7회 차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업 재료는 택배로 배송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윤선목과 지역 예술가들이 기획·운영한다.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수, 목10:00~13:00) 양림동 펍킨마로 공예

특화거리에서 함께 만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 'Zoom'을 통해 총 일곱 번의 만남이 꾸려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별자리를 만들어보다(신체활동) ▲별을 기록하다(사진) ▲다른 별이야기(공연 관람) ▲결과전시회 등이다. 참여자들의 비대면 수업은 자택 등 화상 수업이 가능한 공간이면 어디서든 참여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30-40대 여성들로 15명을 선착순 선발할 계획이다. 5일까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jarte.or.kr>),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jcf.or.kr>) 공지사항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친구신청(계정: 지영씨의 인생부록)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비 무료.

특히, 올해는 육아로 인해 참가를 망설이는 지영씨들을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를 섭외하여 '육아돌봄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유아의 연령에 맞게 돌봄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조광조 유배지에서 정약용을 그리다

이기원의 예술사색



이기원 작 '다산 정약용'

화순 능주의 조광조 유허비가 있는 정문 곁에 내 작업실이 있다. 50년 넘게 살던 광주를 떠나 3년 전에 이곳으로 들어왔다. 1백40평 정도 되는 대지에 조선 후기 고종 때 지어진 정갈한 한옥이 정남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나무가 제 몸에 나이테를 새기듯 1백20년이 넘는 한옥의 서까래와 기둥은 시간의 흔적만 더했을 뿐 그대로다. 그리고 율령진 마당 한쪽엔 작은 작업실을 들여놓았다.

추위가 심했던 지난겨울, 흙에 손의 온기를 내어주며 다산 정약용 선생과 함께 겨울을 보냈다. 종종 때 시대를 앞서간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하다가 기묘사화로 목숨을 잃은 조광조의 유배지에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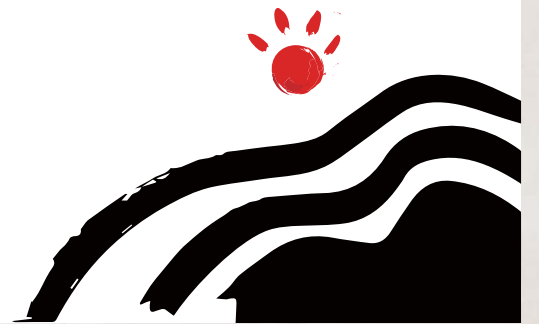
생을 만나는 일은 작업실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의 끝처럼 명징한 정신을 갖게 했다.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하다 신유사옥 후 강진으로 유배당한 정약용 선생의 개혁을 생각하며 작업을 하는 나의 자세 또한 등을 곧추세우고 생각은 날이 설 수밖에 없었다.

작가에게 작업실은 스스로를 가두고 유배시키는 '우리안치'(圍籬安置)와 같은 곳일 것이다. 그 안에서 자신을 깨우치고 모든 것을 던져극에 닿는 일이 작가의 숙명이다. 이제는 작업실 문을 열고 정약용선생과 함께 다산초당에서 백련사에 이르는 산길을 오래오래 걷고 싶다.

<화순 능주에서 조각가 이기원>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抒情



광주매일신문과 광주광역시 문인협회가 공동으로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抒情」을 발간했습니다.

이 작품집은 지난 4년여 동안 광주매일신문에 연재됐던 광주문인협회 소속 회원들의 시와 수필을 엄선한 것입니다. 작가들에게는 탐과 열정과 사색의 결과물인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발표의 장을 제공했고, 독자들은 아름다운 시와 사연이 깃든 수필을 대하면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물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울한 시기에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한 편의 시와 수필은 큰 위안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행처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연락처 062-650-2078
값 18,000원